"문화재보존비 정부 지원"

국립공원 입장료폐지이후 교계 대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신임이사장이 입장료 폐지 의사를 확고히 밝힘에 따라 입장료 폐지의 원칙은 굳어졌으나 그에따른 불교계의 대응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간 입장료 폐지를 목소리 높혀 외쳐 왔을뿐 폐지 이후 공원내 사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측도 아직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그간 공원내

법적 보호장치 마련 힘 모아야
탐방객 유치 홍보등 관심 절실

사찰이 입장료 수입중 일부(10~30%)를 문화재 수리 보존비로 지급받던 부분을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입장료의 폐지에 따른 공단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만큼 공원내 사찰에 지급해 온 문화재 수리보존비도 기존의 관례를 인정해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장료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문화재 수리보존비까지 떠 맡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문화재 수리보존비 지급 근거 자체가 '원인소멸'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불교계는 지금까지 연간 10억 이상씩 지급 받아 온 문화재 수리 보존비 수급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문화재관람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입장료의 폐지에 따라 사찰측이 단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 매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매표소의 설치 위치도 새롭게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매표 인력의 수급은 사찰의 재량에 따라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으나 매표소의 위치 조정은 사찰 탐방객의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중이 요망된다. 또 사찰이 소장문화재를 안내하고 그 가치를 탐방객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는 정부와 불교계가 신중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지만 그에따른 불교계의 대안은 불교계 내부의 화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원관리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불교계가 발빠른 대응을 함으로 입장료 폐지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연태 기자

수요 인터뷰

5월 25~26일 참선철야 대법회 여는

수덕자 주지 **법장스님**

"파사현정 실현은 공생의 길"

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하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가 4월 5일 신흥사 법회에이어 25~26일 수덕사에서 철야정진 법회로 열린다. 대법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만났다.

- 불교계가 하나도 뭉쳐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신흥사에서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2차 법회로 수덕사에서 파사현정 실현을 위한 철야 참선정진법회가 열리는데, 의의를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제금융 체제 속에서, 실업자 급증 물가고 등 일시에 몰아닥친 경제대란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돌이켜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도리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파사현정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일깨우셨습니다. 이번에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갖는 참선 철야정진도 바로 이같은 원력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덕사는 한국불교 선종의 본찰로 경허-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있는 가람이라 법회장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실직자 돕기 농축수임산물 직거래장터 열어

- 참선을 통한 참회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요.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됐으며 빛나는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수덕사는 경제위기를 맞은 지난 연말부터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사중 전대중과 신도들이 참여해 참선 철야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으로서의 철야 참선도 되고 그 선한 인연으로 국난극복을 앞당길 것입니다. 철야 참선정진은 불자의 필수 수행과정이라고 봅니다. 국난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면 바로 자리이타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직자를 돕는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법회인데 불자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봅니다.

- IMF체제의 극복 과정에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실직자를 위한 지원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가슴 아픕니다. 따라서 이번 국난극복을 위한 대법회에서는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는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농·축·수·임산업 협동조합의 참여로 우리 농축수임산물 공동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실업자를 위한 기금으로 불교계 실업자 구제창구에 전달할 것입니다. 장터는 26일 오전 10부터 오후5시까지 엽니다.

- 우리 농수축임산물 공동직거래 장터는 사찰에서는 처음 열리는 신종 불사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국민이 지은 싱싱한 우리 농축수임산물을 직접 거래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거지요. 그래서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시중가격보다 싸게 우리 산물을 구입해서 좋고, 농어민들은 제값을 받아 좋고, 무엇보다 실직자 돕기 기금이 많아져서 좋은 1석3조의 기대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끝으로 이날 법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5일 밤9시에 참선 철야정진에 들어가 26일 새벽3시에 방선합니다. 아침공양 후 만공스님의 수행처인 정혜사를 참배하고, 오후2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장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회 회향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위영란 기자

◇새불교전국승가회가 14일 마련한 '실업자를 위한 불교 프로그램 연구' 포럼

"공급자보다 수용자 중심 실업 프로그램 마련해야"

새불교전국승가회 '실업대책' 포럼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형식적이고 공급자 중심에서 내실있고 수용자 중심으로 모색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삼보정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다ㄱ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종교인들이 실업자들의 새출발에 정신적 모티브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불교전국승가회(회장 진관 석담)는 14일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실업자를 위한 불교프로그램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준교수(동국대)는 불교계를 비롯 천주교 개신교의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현 종교의 대응 양태를 설명하고 실직자돕기 범불교대책위(가칭) 구성 등의 불교계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박교수는 또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에 있어 △수용자 중심 △종단 및 본사급 사찰의 특별예산 책정 △신도들이 생활화할 수 있는 실천지침의 제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와 진철승씨(한국종교연구회)는 종단의 유휴토지를 이용한 귀농학교를 확대, 스님과 신도는 물론 일반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공동체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재스님(범어사 계명암 주지)은 종교적 이념과 사상을 통한 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직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줘 새출발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사섭법 경제윤리 재정립"

교수불자련 '국난극복 자비실천' 세미나

◇박선영교수

◇유필화교수

◇정기웅교수

◇황진수교수

IMF 관리하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불교적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조희영)가 '국난 극복을 위한 불교와 자비의 실천'을 주제로 16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최한 봉축학술세미나에서는 이와관련, 경제위기 및 탈북자를 위한 사회정책 등 국난극복 방안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는 '국난극복을 위한 사회개혁과 불교의 자비실천'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자비정신에 바탕한 사회개혁"이라며 "일찍이 불교에서 전륜성왕이 정법의 구현에 의해 이타자비를 실현하였던 것과 같이 무소유의 삶을 이상으로 하는 도덕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오늘날의 경제관념으로는 완전무결한 무소유의 삶은 있을 수 없으나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동리(東利)의 사섭법(四攝法) 등 불교에서 제시하는 경제윤리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발표한 유필화교수(성균관대 경영학과)는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는 신뢰의 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성장 고물가 시대도래, 구조조정의 진통, 강도높은 금융개혁, 경제개방의 가속과, 외국자본의 진출, 실업증대와 사회불안 등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탈북 이주자를 위한 사회정책'에서 황진수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이들에 대한 접근은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의 시각에서 다루기 보다는 인간애, 동포애,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웅교수(경찰대 법학과)는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통해 "무엇보다 사찰이 수행과 신행의 도량이자 민족문화유산을 간직한 성스(聖所)임을 자각하는 한편, 전통사찰보존법 등 엄격한 법률적 대응이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목어

책잔치와 불교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적 부보다 물질적 부를 누리려 한다. 그래서 재물에 탐착한다.

정신적 부를 축적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손쉽고 가까운 길은 책속에 있다. 책은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넓히는 보고(寶庫)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정신적 부가 물직적 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신적 부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돈벌듯 책을 읽거나 사재기를 할 것이다.

지난 3월 두 군 데 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평균 책 읽는 시간이 해마다 감소하고 반면에 TV시청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국민전체 연평균 독서량은 9.5권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변화가 없는데 독서시간은 94년의 54분(평일)에서 97년에는 40분으로 줄었다. TV시청시간은 평일 1백34분 주말 1백52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조사한 97년 년간 국민독서량은 7.6권 94년에는 9.0권이었다.

"1년간 한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응답은 94년 18.9%에서 97년 21.8%로 늘어났다.

독서문화 감소현상은 정신 궁핍화 현상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떠할까.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다 어느날 불어닥친 IMF바람과 책안읽는 풍조와는 무관할까.

두개의 대형 책잔치가 서울서 열리고 있다. 21~27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알뜰도서전은 재고도서축제다. '좋은 책-좋은 만남'의 이 행사에서는 3백여 출판사가 출간 2년이 지난 책을 아주 싸게 판다. '책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17개국의 25만권 책이 세계출판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유감스럽게도 두개의 큰 책잔치에 불교출판사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기독교 출판사들은 국제도서전에서 홍보책자와 무료 전도지까지 배포했다.

참으로 21세기의 빛과 희망으로 활용되게 하려면 불교종단과 사찰 신도가 불교출판독서문화 육성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부자되게 하는 불교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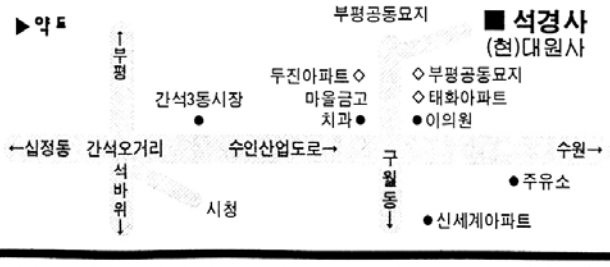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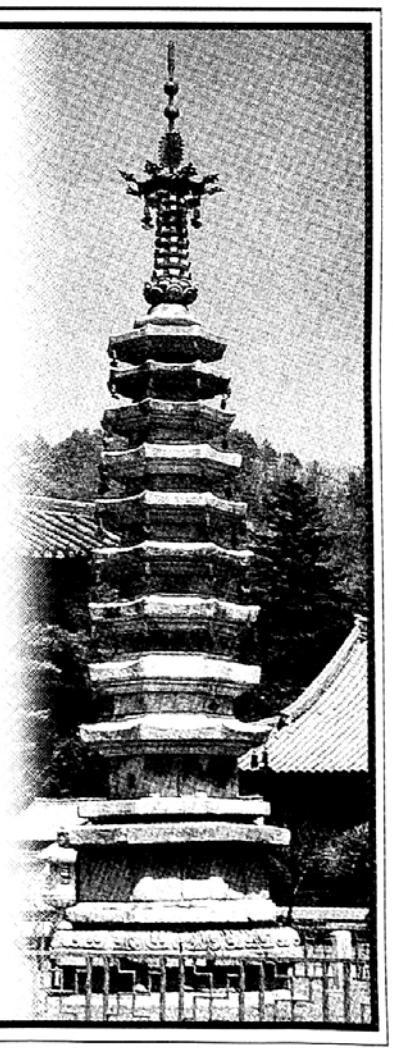
국난극복 국민화합 기원대법회

김교각 지장보살상 및 진사리탑 점안 대법회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은 서기 696년 신라 선덕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24세에 왕위를 버리고 중국으로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구화산에 들어가(화성사)를 개창하고 지장도량을 일구니 만민이 지장보살로 추앙하고 구화산은 중국의 4대 불교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99세에 앉은 자세로 열반에 드셨으니 육신을 금으로 입혀져 중생의 변함없는 숭배의 대대상으로서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날 구화산은 김교각 대존자님을 찾는 참배객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줄을 잇고 있으며 교각스님이야말로 전인류의 스승이용 한국민의 자랑이며 역사적 인물로서 천추만대에 길이남을 것입니다.
국내의 많은 분들이 교각 대존자님을 찾아가고 있건만 정작 태어나신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흔적하나 없음은 후대의 아쉬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중국에서는 교각스님 탄생 1300주년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고 안위성장과 구화산 방장스님께서 스님의 고향을 방문하여 한중 양국민의 우호 증진과 양국불교의 교류를 위하여 경주 불국사에 지장왕보살 교각상을 동불로 모시고 그분의 태어나신 땅 서라벌에 모시는 것을 지난해에 처음으로 불국사에 김교각 대존자불을 모시고 이번 석경사(현 대원사)에서는 석불로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국민은 불심에 의해 위대한 조상이며 교개의 긍지인 김교각 대존자님 탄신 1300여년만에 고향인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석불로서는 제1호로 모시게 된 것은 김교각 대존자님의 가피력과 원력에 힘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번 이불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하고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에 진사리탑과 김교각 대존자님의 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원력으로 제 1차 석경사(현 대원사) 대웅전 사찰 창건불사와 제 2차 사회복지관 불사가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전 불자는 수회 동참하여 대원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 사 내 역 ●

⊙ 행사제목 : 국난극복 국민화합 기원법회 및 김교각 대존자님 지장보살상 및 사리탑 점안 대법회 대웅전 사찰창건 불사
⊙ 일 시 : 1998년 6월 2일(불기 2542년/음력 5월 8일) 화요일
⊙ 시 간 : 제1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점안법회
제2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법회
⊙ 장 소 : 석경사 (현 대원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116번지
⊙ 전 화 : (032)463-1630, 462-7322 핸드폰 : 011-322-1630
⊙ 주 최 : 석경사 (현 대원사) 신도회

지장보살 김교각상 및 진사리탑 합동봉안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인천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석 경 사 (현 대원사) 해월 최태광 합장

대웅전 사찰창건 불사에 동참하실 분은
온라인 : 212-2190838-968 (예금주 : 최석호)